

호주 한국어 교육에서 언어문화 교육과정 개발 현황

김현미(서호주 교육부 교육과정평가원)

니콜라 프라스키니(서호주대학교)

1. 서론

2022년 외교부 통계에 따르면 현재 외국에 거주하거나 체류 중인 재외 동포수는 대략 730만 명이 넘는다. 이 중 재외동포 역사가 길고 그 수가 가장 많은 미국과 비교해 볼 때 호주의 초중고등 한국어 교육역사는 짧지만 1990년대에 New South Wales(NSW)에 한국어가 처음 도입된 이후 빠른 속도로 발달해 왔다. Shin (2010)에 따르면 2010년도 한국어 교사 1명 당 학생 비율은 1:61이었다.¹ 2022년 현재 한국어 교사 수는 117명이며, 한국어 학생 수는 6,593명으로 교사와 학생 모두 꾸준히 증가했다.² 2010년도 당시 한국어를 배우는 교포 학생 비율이 비교포 학생보다 높았으나 점차적으로 비교포 학생 수의 증가로 인해 한국어 교육의 주 대상이 교포 학생에서 비교포 학생으로 바뀌게 되었다(Fraschini & Choi 2022). 이에 따라 관련 정부기관에서는 다양한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 교육과정 개발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호주를 구성하는 6개의 주 및 2개의 준주에는 각각 독립적인 지역 정부가 있으며 주 또한 준주의 교육과정을 개발하는 교육부가 따로 있다. 다시 말하면 교육과정 개발을 담당하는 국립 기관인 ACARA³가 교육 과정을 개발하지만 각 주 교육부는 ACARA 교육과정 방침을 전적으로 따르지는 않는다. 각 주는 ACARA 교육과정을 참고하되 자신만의 교육과정을 개별적으로 개발한다. 이로 인해 현재 호주에는 ACARA 한국어 교육과정, NSW 한국어교육과정, 그리고 현재 개발 중인 Western Australia(WA) 교육과정을 포함하여 총 3개의 교육과정이 있다. 본 발표에서 이러한

¹ 당시 한국어 교사는 69 명이 4,229 명의 학생을 가르쳤다.

² <https://okeis.moe.go.kr/koSupply/koAdopt/edu/idxData.do>

³ Australia Curriculum Assessment and Reporting Authority.

교육과정을 소개하고 교육과정의 특징을 논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ACARA 한국어 교육과정

ACARA의 한국어 교육과정은 보통 자체적으로 한국어 교육과정이 개발되어 있지 않은 주와 ACT 준주⁴에서 채택된다. 앞서 언급한 NSW와 WA의 교육과정과 달리 두 가지의 큰 차이점이 있다. 첫번째 차이점은 ACARA 한국어교육과정은 F-10 학년에만 해당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11-12학년의 ACARA 한국어교육과정이 없다. 그 이유는 11-12학년의 교육 내용이 대학 입시와 연결되어 있어야 하며 자체 교육과정이 개발되어 있지 않은 주는 대학 입시 목적 한국어 시험이 그 시험이 개발된 또 다른 주에서 시험지를 빌려서 사용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ACARA에서 개발된 한국어 대학 입시 시험이 없기 때문에 해당되는 11-12년 교육과정도 개발되어 있지 않다. 두번째 차이점은 ACARA 교육 과정은 교포/비교포 과정으로 나뉘어져 있지 않다는 것이다.

3. NSW 한국어 교육과정

NSW 주는 한인 인구가 제일 높고 1990 년대에 한국어가 가장 먼저 도입된 주이다. NSW의 한국어 학습자는 2000년대 초반까지 주로 교포 학습자로 구성되어 있었으나 2011년부터 교포 학습자 수가 하락하기 시작하는 동시에 비교포 학습자 수가 크게 증가했다(Fraschini & Choi, 2022). 한국어가 처음에 도입된 시기에 교포 학습자가 주 교육의 대상이었으므로 그들을 대상으로 교육과정이 개발되었다. 그러나 2008-2011년 사이에 호주 정부가 아시아 언어 교육을 촉진하는 정책(NALSSP) 발표의 영향으로 NSW 주에서 비교포 초급 학습자 대상 교육과정이 개발되었고 2016년에 도입되었다. 2001년~2021년 NSW 대입 시험 응시생 통계를 기준으로 기타 외국어는 응시생의 하락세를 보여 주고 있는 반면에 한국어는 응시생의 증가세를 보여 주고 있다(Fraschini & Choi, 2022).

ACARA 교육과정과 비교하면 NSW 교육과정의 특징은 다양한 한국어 능력과 문화적 배경을 가지는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여 매우 세분화된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학습자가 가지는 한국어 관련 지식에 따라 교육 과정의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NSW

⁴ Australia Capital Territory, 즉 호주 수도인 캔베라.

교육과정은 Korean Beginners, Korean Continuers, Korean in Context, Korean and literature 라는 4 가지의 유형으로 나뉜다. Korean beginners 는 한국어 관련 지식이 없는 비교포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다. Korean Continuers 는 초등학교에서 한국어를 배우고 중고등 학교에 진학하는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다. Korean in Context 는 2 세 교포 학습자를 대상하며 Korean and literature 는 1 세 또는 1.5 세 교포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다.

4. WA 한국어 교육과정

2016 년 기준으로 서호주 거주 한국인의 수는 6,862 명이며, 호주 전체 한국인 수는 98,775 명이었다. 서호주 한국인은 호주 전체 인구수 23,401,892 의 0.02%로 호주 동부에 있는 시드니, 멜버른, 브리즈번 등의 지역에 비해 한국인 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이다.⁵ 그러나 2020 년 서호주 정부는 2023 년도부터 제 2 외국어로서의 한국어와 교포 대상 한국어 교육과정을 제공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리하여 현재 서호주 교육과정평가원에서는 교포 및 비교포 과정이 개발 중에 있다. 초중등 교육과정 (P-10, Year 11/12)에 모두 한국어가 개설될 것이며, 초등 및 중학교 1-2 학년의 경우는 호주표준교육과정(ACARA)을 부분적으로 참고하여 개발 중이다. Year 11/12 의 경우는 서호주 고유의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있다. 이렇듯 호주의 경우, 해당 과목의 호주표준교육과정이 개발되어 있지만 각 주 정부는 주 정부 재량으로 주 정부 고유의 교육과정을 개발하기도 한다. 이는 그 지역의 현지 교육 사정과 상황을 고려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호주의 교육과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교육과정의 기준 혹은 맥락으로 접근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을 것이다.

2022 년 기준으로 서호주 고유 중등교육과정의 제 2 외국어 과목은 중국어, 프랑스어, 독일어, 인도네시아어, 이탈리아어, 일본어 등이다. 여기에 한국어, 힌두어(Hindi), 타밀어(Tamil) 그리고 서호주 남서지역 원주민의 언어 중 하나인 농가어(Noongar)도 학년별 교육과정이 2023 년도에 최초로 도입될 예정이다.⁶

⁵ https://www.abs.gov.au/census/find-census-data/quickstats/2016/6203_0

⁶ <https://www.scsa.wa.edu.au/>

서호주 외국어 교육과정 특징

- 서호주는 ‘adopt and adapt’의 기초 아래 서호주만의 개별 교육과정을 마련하고 운영하고 있는데 한국어 교육과정 역시 이러한 정책을 반영하여 개발되고 있다. 따라서 한국에서 현지 맞춤형 교육과정, 교수요목, 교육자료를 개발할 때 이러한 각 주의 특성을 고려한 지원 및 접근이 필요하다.
- 각 언어별 교수요목은 다르지만 제 2 외국어 과목의 교육과정 운영 방식은 비교적 표준화되어 있다.
- 2018년에 새로운 제 2 외국어 과목관련 정책에 따라 Year 3부터 Year 8까지 학생들은 필수로 제 2 외국어 과목을 수강해야 한다. (한 과목)

서호주 한국어 교육과정 특징⁷

- 교포 대상 한국어도 개발 중이다. 국외 공교육과정에 교포 대상 한국어 교육과정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서호주의 경우 호주 내에서 상대적으로 한국인 수가 적은 편임에도 불구하고 비교포 과정과 함께 개발 중인 것은 주목할 만한 점이다. 다른 외국어 교육과정도 이와 같은 구조이다. 이는 교포 2세 한국어 학습자 뿐만 아니라 1.5세 학습자에게도 한국어 숙달도에 따라 한국어 학습 기회를 제공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 서호주 WACE(대학입학시험) 외국어 과목 수강 허가 여부는 1) 해당 언어의 숙달도, 2) 해당 언어를 쓰는 나라에서의 거주 기간 및 3) 교실 밖 해당 언어 사용 정도를 기준으로 삼는다. 이 기준에 따라 학생들은 제 2 외국어 과정, 교포 과정, 제 1언어 과정의 학습 경로가 결정된다.
- 한국어 교육과정 개발 시에 대학교 한국어교육 전공 교수, 한국어 및 다른 언어 담당 고등학교 교사, 한글학교 교사 및 호주 교포 학생들이 자문회의에 참석하였다. 이는 실제 교육과정에 관련이 있는 각각의 주체들이 자문회의에 참석함으로써 교수자 및 학습자 모두의 견해가 교육과정 개발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⁷ <https://senior-secondary.scsa.wa.edu.au/syllabus-and-support-materials/languages>

- 2022년 10월 현재 이 두 과정과 교수요목을 서호주교육과정평가원(School Curriculum and Standards Authority)에서 확인할 수 있다.

5. 논의 및 결론

호주 정규 공교육 과정 내 한국어 교육과정의 도입은 시드니(NSW 주)를 제외한 다른 곳에서는 비교적 최근에 그 과정이 개발되거나 되고 있는 중이지만 현재 한국어 학생수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또한 최근 서호주 주 정부는 제2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과정 뿐만 아니라 교포대상 한국어 교육과정도 함께 개발에 착수하였다.

2022년에 발표된 호주 인구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민자 인구는 전체 인구수의 대략 30%를 차지한다. 이들 이민자들은 호주에 자신들의 언어와 문화를 가져오고 자신들의 모국어를 사용한다. 호주에서 일반적으로 말하는 ‘외국어’는 다른 나라의 언어가 아닌 호주에 존재하는 많은 언어 중 하나로 볼 수 있다. 이것으로 인해 foreign languages 이라는 말 대신에 community languages 이라는 표현이 사용되었다가 현재는 languages 이라는 말이 사용된다. 물론 ‘다른 나라의 언어이면서도 호주의 언어이다’라는 인식은 한국어에도 적용되며 교과과정에서 잘 부각된다. ACARA, NSW, WA 교육과정의 공통점은 한국어는 즉시 호주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언어이기 때문에 한국어를 학습 하는 1차적 목표는 주변 지역 사회 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있다. 주변 지역 사회란 교포 학습자의 경우에 가정이나 한인 사회가 될 수 있고 비교포 학습자의 경우는 한인 학급 친구, 인터넷 커뮤니티, 한인 사회 등이다. 다시 말하면 호주 정규 공교육 과정에서의 한국어는 한국어가 통용되는 곳만이 아닌 호주 내에서도 사용 가치가 높은 언어로 소개되고 있다.

본고에서 소개한 ACARA, NSW, WA 한국어 교육과정의 두번째 공통적 특징은 다음과 같다. 등급별/학년별 학습자의 숙달도가 표준화된 형태로 제시되지 않는 것이다. 각 교육과정에는 교육 목표가 제시되어 있고 단계별로 학습자가 한국어로 어떤 과제를 어떻게 수행할 수 있는지를 평가과제 샘플을 통해 제시되어 있다. 따라서 하나의 표준화된 기준이 제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ACARA, NSW, WA의 교육과정 간 비교, 혹은 다른 나라에서 개발된 교육과정과 비교하는 것은 다소 용이하지 않다.

참고문헌

Fraschini, N. & Choi, S. (2022). Korean language education in Australian schools: Current state and trends. Paper presented at the 33rd conference of the 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Korean Language and Culture (INK), May 21st, Sogang University.

Shin, S.-C. (2010). *The current state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in Australian schools*. Education Services Australia.